

< 2024년 교회 표어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일 4:16)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 사도신경

- 찬 송 292장

1.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2.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3.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뉘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4.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 기 도

- 성경본문 요한복음 1장 1-3절

-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 삶 나누기 날씨가 점점 더워집니다. 더위를 피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요한복음의 대주제

요한복음의 대주제는 ‘생명(ζωή 조에)’입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먼지처럼 살아가며, 길가에 돌부리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생명’이라고 밝힙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10:10b).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일으키신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되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꽃피워 열매 맺게 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생명이라는 화두를 놓고, 예수사건에 대한 요한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주제의 두 축은 <생명>과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로고스)이 계셨다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케 하는 일종의 우주의 기원 내지 세계의 기원을 말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의 주제인 ‘생명’과 ‘변화’와 밀접하고 결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태초에”는 헬라어로 ‘아르케(ἀρχή)’인데,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욱 근원적인 이전을 말합니다. 시간도 공간도 있기 전에 로고스(λογος), 즉,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로고스는 언어가 아니라 살아계신 진리요, 인격입니다. 그리고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만물의 근원이 살아계신 말씀(로고스)이라고 합니다.

과학에서는 만물이 산소, 수소, 탄소, 질소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기원이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은 로고스(말씀)를 통해서, 말씀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의 근원은 물질이 아닌 말씀(로고스)이신 하나님입니다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라 로고스(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의 기원을 물질로 본다면, 이는 모든 존재의 토대가 결국 물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맘모니즘적 물질주의가 틀렸다고 말하지만, 이는 단지 윤리적인 차원일 뿐 존재론적으로는 물질중심주의 세계관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간도 그 존재의 토대는 물질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태초에 있었던 것은 물질이 아니라 로고스(말씀)이시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바 되었기에, 물질주의 세계관은 그 존립 근거가 취약하며, 세계관 자체가 근원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설정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질 자체를 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의 또 다른 뜻은 물질 자체를 보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물질은 그냥 물질입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의 관점으로는 물질은 그냥 물질이 아니라 인격(personality)을 담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것은 그렇기에 생명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길가의 돌멩이 하나, 산의 바위 덩어리 하나도 거기에 인격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이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은 물질 자체를 보는 우리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성도님들은 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유물론적 세계관이나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 혹은 돈(재물)에 담겨 있어야 할 인격성을 부정하고, 그 자체를 추구하거나 그것은 그저 물질일 뿐이라고 비하하면서, 전혀 신앙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다루고 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태초에 있었던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말씀이다’라는 말씀은 이런 우리 자신에 대해 깨어남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그 시작부터 우주관, 세계관의 대전환을 통해, 그 안에 사는 인간이, 생명지향적 세계관으로 인생과 우주를 바라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 나눔

1. 요한복음 주제의 두 축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힌트: ㅅㅁ 과 ㅂㅎ)
2. ‘태초에 만물이 말씀(로고스)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을 생각해보고 내 말로 표현해 보세요.
3. 나의 말, 선택, 행동에는 나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의 세계관은 말씀(로고스)과 물질 중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까? 각자의 경험을 나눠봅시다.
4.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